

LG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안정 속 혁신' 기조 강화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 유임 무계 주요사업 'ABC' 중심 성과 인정
트럼프시대 대비 컨트롤타워 강화
혁신 위해 일부 세대교체 예상도



지난 9월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구광모 회장. /LG전자

LG그룹이 사장단 정기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LG는 앞서 큰 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한데다 이번 실적에서 선방한 만큼 대부분 사장단은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부회장 승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2명으로 줄어든 부회장단을 보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혁신 기조를 유지한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도 젊은 인

재들로 일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오는 21일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G그룹은 매년 10월부터 한달간 계열사별로 사업 보고회를 진행한 뒤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다.

이번 사장단 정기인사에서는 안정에 힘을 실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봉석(썬) LG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LG그룹의 주요 사업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클린테크(Clean tech) 등 'ABC'를 중심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직접 영입한 만큼 조직에 남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부회장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3M 본사에서 근무하며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조주완 사장은 1987년 LG전자에 입사했으며 2021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장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LG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LG전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전에서 AI, 플랫폼, 기업간 거래(B2B) 등으로 다각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일부 부회장단 승진도 진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부회장 승진 후보군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가전 시장의 부진에도 기존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중심의 사업을 B2B(기업간거래)로 체질 개선하며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사장과 정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 LG그룹 부회장단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LG그룹의 부회장은 3인 체제였으나 지난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2인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구 광모 회장이 '세대교체'와 '미래 준비'를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실무 담당 임원진은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앞서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그룹 대부분 사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LG는 세계 최고, 최조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온 결과"라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승연 "글로벌 선점 위해 초격차 확보해야"

(한화그룹 회장)

한화오션 사업장 첫 방문
트럼프 러브콜 대응 행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이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김 회장이 한화오션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임직원에게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설비를 갖춘 핵심 연구 거점이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력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



김승연 회장(가운데)과 김동관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

o.1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 회장은 사업장을 둘러본 뒤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오찬 자리에서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신뢰의 뜻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기, 차량 카메라 SW 레벨 3 인증 획득

향운 기능 지원 'A-SPICE'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급 예정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가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해외 완성차 및 전장 부품 업체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대응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utomotive SPICE 이하 A-SPICE) E) 레벨 3(Capability Level 3-CL3)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A-SPICE는 자동차용 부품 생산 업체의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개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 완성차 업체가 제정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다.

A-SPICE의 등급은 가장 낮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레벨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A-SPICE 레벨 3은 'SW 프로세스가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히 관리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삼성전기는 향운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A-SPICE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 전장용 카메라는 눈, 비 등 악천후, 고온, 고압, 초저온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해야 하는데, 삼성전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전장용 카메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한다. 삼성전기는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장용 카메라모듈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혁신센터장 이시우 부사장은 "삼성전기의 전장용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했다"며 "삼성전기는 전장카메라 제품력을 강화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

삼성 글로벌 골즈 앱, '앤섬 어워드' 수상

지구촌 과제 해결 영향력 인정

지구촌 과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삼성전자의 글로벌 골즈 앱(Samsung Global Goals)이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가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등을 목표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운

영 중인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이 제4회 앤섬 상에서 '파트너십과 협업-책임감 있는 기술' 부문 동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앤섬 어워드는 미국의 국제 디지털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상으로 개인, 기업, 조직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해 수여한다.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은 삼성전자와 UNDP가 파트너십을 맺고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출시한 앱으로, 약 3억명이 이용 중이다.

갤럭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직접 기부나 앱 내 광고 시청 등 방식을 통해 지구촌 과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제주항공, 신분확인 대상자 편의성 개선

추가 증빙 없이 탑승절차 간소화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확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을 개선한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신분확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확인받아야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최초 탑승 시 신분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

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확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